대한수혈학회지 최신 현황

김경희^{1,*} · 김재현^{2,*} · 조 덕³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진단검사의학과¹,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²,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교실³

Current Status of Our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Kyung-Hee Kim, M.D.^{1,*}, Jaehyun Kim, Ph.D.^{2,*}, Duck Cho, M.D.³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Gil Medical Cente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¹, Incheon; Plasma Fractionation Center, Korean Red Cross², Eumseong;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and Genetics,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³, Seoul, Korea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KJBT) is a representative journal in the field of transfusion medicine and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blood business and clinical research. The KJBT was selected as a candidate journal register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in 2009 and was selected as a KCI-registered journal in 2016. The KJBT has published 796 articles, including 601 original articles and 144 case reports from the first issue to volume 31, number 2. The KJBT has continuously introduced new tools for improving journals but was assessed as having a high self-citation rat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urnal.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apers to improve the value of the KJBT. To accomplish this, continuous efforts of the editorial committee will be needed to provide better services to authors and readers and to promote journals. (Korean J Blood Transfus 2020;31:193-200)

Key words: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Transfusion medicine, Self-citation, Editorial committee

대한수혈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는 수혈의학 및 세포치료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대한수혈학회와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국내 수혈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학술지이다. 대한수혈학회지는 1990년 11월에 창간호가 발행된 이후 1991년부터 매년 각 1권씩 2호(5월 혹은 6월에

1호, 11월 혹은 12월에 2호)가 발행되다가, 2007년부터는 매년 각 1권씩 3호가 각각 4월, 8월, 12월의 정기성을 갖고 발행되기 시작하여 2020년 8월까지 31권 2호가 발행되었다. 대한수혈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로부터 학술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기준을 충족시킴으

Received on September 24, 2020. Revised on October 22, 2020. Accepted on October 27, 2020

Correspondence to: Duck Cho, M.D.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and Genetics,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81 Irwon-ro, Gangnam-gu, Seoul 06351, Korea

Tel: 82-2-3410-2403, Fax: 82-2-3410-2719, E-mail: hasomii@hanmail.net, ORCID: <https://orcid.org/0000-0001-6861-3282>

*Kyung-Hee Kim and Jaehyun Kim contributed equally as co-first authors.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20 The Korean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로써 학술지의 내실을 다지고 국내외 학술지의 발전 방향에 발맞추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9년 20권 1호부터 2015년 26권 3호까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등재후보 학술지로, 2016년 27권 1호부터는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하여 현재까지 대한수혈학회지의 발간 현황과 체계 개선을 통한 발전 노력 및 학술지평가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본 학술지의 의의를 고찰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1. 대한수혈학회지 발간 현황

대한수혈학회지에는 창간호부터 31권 2호까지 원저(original article) 601편, 증례(case report) 144편, 종설(review article) 31편, 독자투고(letter to the editor) 15편, 단신(short report) 3편, 사설(editorial) 2편으로 총 79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2009년 K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게재된 논문은 총 350편으로 원저 243편(69.4%), 증례

56편(16.0%), 종설 31편(8.9%), 독자투고 15편(4.3%), 단신 3편(0.9%), 사설 2편(0.6%)이었다. 2009년 20권부터 2019년 30권까지 최근 10여년간 연도별로 각 권별 게재 논문 수의 추이를, 총논문수와 원고 종류별 논문수로 살펴보았다(Fig. 1). 연도별 총 논문 수는 평균 30편으로, 원고 종류별로 원저 22편, 증례 5편, 종설 2편, 독자투고 1편, 단신과 사설이 1편 미만으로 게재되었다. 주로 원저와 증례로 구성되던 논문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2012년부터 종설, 2013년부터 독자투고, 2018년부터 단신과 사설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종류가 다양해짐으로써 연구자가 결과를 발표하기에 적절한 원고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독자가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인 형태로 접할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편집진의 입장에서는 논문 각 호의 발간 당시에 중요한 수혈의학 이슈에 대하여 적합한 원고 형태를 채택하여 시의 적절하게 게재할 수 있는 편집의 유연성이 더해질 수 있었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초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

Fig. 1. Total number of papers and number of papers according to the type of article per volume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over the last 10 years.

Abbreviation: vol., volume.

19) 대유행을 맞아 2020년 4월 31권 1호에 사설한 편과 독자투고 두 편의 관련 논문을 재빠르게 수록함으로써 COVID-19이 수혈과 혈액관리에 미치는 영향[1], 국내 수혈혈액 안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2], COVID-19 회복기 혈장치료 시 고려사항[3]에 관하여 독자에게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2009년 20권 1호부터 최근 31권 2호까지 게재된 논문 350편의 제1저자를 소속기관별로 집계해보면 총 49개 기관에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수혈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급혈액원인 대한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2020.9.12.부터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이하 혈액안전감시과)에서도 제1저자로 참여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 중 제1저자로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5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16.0%, 56/35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등 정부기관에서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총 33편(9.4%, 33/350), 혈액안전감시과에서 제1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총 8편이었다. 즉 대한수혈학회지 저자의 소속기관은 일선에서 수혈과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헌혈과 혈액공급 실무를 담당하는 공급혈액원과, 혈액안전감시 및 국가 수혈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학술지가 학술적 임상연구는 물론 수혈과 헌혈 및 혈액관리에 관한 정책적 연구 토론의 장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한수혈학회지 체계 개선 현황

대한수혈학회지는 대한수혈학회의 전폭적인 지

Fig. 2. System improvement status of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Abbreviations: Vol., volume; ORCID, Open Research and Contributor ID.

지에 힘입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온라인저널홈페이지(www.kjbt.org)를 통한 정보 제공과 학술지 형식의 개선을 포함하여 학술지 전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왔다(Fig. 2). Full-text JATS XML 도입으로 참고문헌 링크와 과충 ‘ScienceCentral’을 통한 대한수혈학회지 검색이 가능해졌다. ‘CrossRef’로 상호 인용 정보와 인용 원문 링크 제공, ‘FundRef’로 연구비지원기관 표시, ‘CrossMark’로 출판이력과 저자식별정보 등 중요 서지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연구자 고유 식별번호인 ‘Open Research and Contributor ID (ORCID)’를 도입하여 편집위원은 반드시 등록하게 함으로써 편집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교신저자는 논문과 온라인저널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ORCID를 표기하고 있으며, 공저자의 ORCID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영문교정을 초록뿐 아니라 표와 그림 설명에까지 확대하였고, 논문의 투고 시점에 ‘iThenticate’ (https://www.ithenticate.com)를 이용한 유사도 검사(표절 검사)를 시행하여 심사 의뢰 시 심사위원에게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학술지 평가기준에 맞추어 투고규정 개정과 함께 학술지 개선을 지속하여 왔다. 2007년 투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이후로 최근의 학술지 요구사항과 강화된 윤리규정을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전면개정본(2017.8.1)을 적용하였으며, 과충 학술지평가 ‘젠더혁신정책’을 반영하여 ‘성/젠더 보고’ 투고규정을 신설하였다(2019.3.18). 한국연구재단 평가기준에 따라 사설과 독자투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원고에 영문초록과 영문

Fig. 3. Example (volume 31, number 2) of e-mail journal letters from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편집/출판 등 외형항목 평가]				
○ 항목별 설명				
No	항목 및 기준	배점	현재 평가	
1	온라인 기사성(visibility) 해당 학술지 웹사이트 확인 ■ 출판하는 모든 논문의 논문 전문을 온라인 HTML로 제공하고 참고문헌 외부 연결 15점	15	15	
2	발행 논문 수 ■ 300면 이상 : 10점 ■ 250-300면 미만 : 9점 ■ 200-250면 미만 : 8점 ■ 175-200면 미만 : 7점 ■ 150-175면 미만 : 6점 ■ 125-150면 미만 : 5점 ■ 100-125면 미만 : 4점 ■ 75-100면 미만 : 3점 ■ 50-75면 미만 : 2점 ■ 50면 미만 : 1점	10	1	
3	공동발행학술지 가산점 ■ 국내외 관련분야 내 유사 학회들 간의 공동발행만 인정함 ※ 해외학회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발행 시 불인정	+3	+3	
4	저자부담금 부과학술지 가산점 ■ 논문게재료만 인정함 (심사로, 투고료는 불인정) 국제저자식별정보 및 기타연구정보 가산점 ■ ORCID, Funding 정보, Cited by, CrossMark 중 2개 이상 반영 시 : 1점 ※ 자체 학술지 웹사이트 또는 외부 사이트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모두 인정	+1	0	
5		+1	+1	
소계		25 (+9)	16 (+4)	

Fig. 4. Evaluation items, standards, and points for appearance items, such as editing and publication, of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중심단어를 기재할 것을 투고규정에 명시하였고 (2019.5.31), 저자정보 정비요청에 따라 논문에 저자의 직위를 표기하는 것으로 투고규정을 개정하였다(2019.12.2). 이러한 지속적인 체계 개선 노력과 함께 학회원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학회지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2016년 한국연구재단 평가에서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고 2019년 평가에서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독자들이 보다 쉽게 학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9년 30권 1호부터 매 학회지 발간 때마다 전자우편으로 저널소식지를 발송하고 있다(Fig. 3). 저널소식지에는 해당 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각 논문 제목과 원문다운로드 아이콘 및 온라인저널홈페이지로의 연결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호 원고 모집에 대한 홍보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그간 발송한 저널소식지는 대한수혈학회 홈페이지(www.transfusion.or.kr) 회원공간 목록의 최신지견란에 모두 탑재되어 있다.

3. 대한수혈학회지 학술지 평가 현황

대한수혈학회지는 매년 과총으로부터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평가를 받고 있다. 과총 평가는 ‘기본항목’, ‘외형항목’, ‘학술기여도’ 세 가지 평가로 구성되며, 다른 항목은 모두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외형항목 중 ‘발행 논문 수’ 항목에서 연간 논문 수 50편 미만에 해당되어 배점 10점 중 1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Fig. 4). 논문 수에 따른 배점 기준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매년 빠짐없이 평가항목으로 제시되고 있어,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수혈학회지의 지난 10여 년간 연간 발행 논문 수는 30편 내외였으며 2009년에 비하여 최근 논문 수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Fig. 1), 원고 수를 점차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학술지 및 게재 논문에 대한 질적 수준 평가 방법의 하나인 KCI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는 특정기간 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횟수로서

Table 1.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impact factor of Korea citation index (2009~2019)

Year	KCI IF (2-year)	Self-citation rate (%) (2-year)	KCI IF (2-year) without self-citation	Immediacy index
2019	0.23	64.29	0.08	0.04
2018	0.13	62.50	0.05	0.10
2017	0.42	73.08	0.11	0.10
2016	0.19	91.67	0.02	0.03
2015	0.17	50.00	0.08	0.00
2014	0.24	92.86	0.02	0.03
2013	0.18	72.73	0.05	0.07
2012	0.33	90.48	0.03	0.03
2011	0.17	90.91	0.02	0.06
2010	0.36	75.00	0.09	0.06
2009	0.00	0.00	0.00	0.06

Abbreviations: KCI, Korea citation index; IF, impact factor.

동일분야 학술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한수혈학회지의 2019년 2-year KCI IF는 0.23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출간된 대한수혈학회지의 논문이 2019년에 출간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총 횟수(14회)를, 2017년과 2018년에 출간된 대한수혈학회지의 총 논문 수(61)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즉시성지수(immediacy index)는 논문이 당해 년도에 인용되는 빈도를 측정하여 얼마만큼 빨리 인용되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한수혈학회지의 2019년 즉시성지수 0.04는 2019년에 출간된 대한수혈학회지의 논문이 당해 년도 출간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1회)를, 2019년에 출간된 대한수혈학회지의 총 논문 수(25)로 나눈 값이다. KCI 등재(후보)지로 운영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2-year KCI-IF, 자기인용비율(self-citation rate), 자기인용 제외 KCI-IF 및 즉시성지수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2009년부터 2020년 31권 2호까지 게재된 논문 350편이 현재 논문 작성 시점(2020.10.19)까지 인용된 총횟수는 380회로 논문당 평균 인용 횟수는 약 1건(1.1, 380/350)이었으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Park 등[4]이 게재한 ‘국립암센터에서 동정된 적혈구 비에 기항체의 빈도 및 분포’로 총 12회가 인용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 의견으로 자기인용비율이 높은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대한수혈학회지의 논문 범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의학은 의약학 분야 내 다른 주제와 비교하여 국내 환경과 혈액관리법 등의 국내 법률 및 국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수혈관련 연구자는 국외 학술지나 자료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수혈관련 국내 환경과 자료를 참고하여야만 한다. 수혈의학을 다루는 국내 발간 학술지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한수혈학회지는 100% 수혈관련 내용만을 다루는 국문학술

지이다. 수혈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국내 학술지 중 대한수혈학회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하여, KoreaMed (<https://koreamed.org>)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blood’와 ‘transfusion’을 검색어로 찾으면 781개의 논문이 검색되며, 수의학 분야 등 실제로 수혈의학과 관련 없는 논문을 제외하면 총 430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대한수혈학회지 논문이 288편(67.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ALM)은 24편(5.6%), Blood Research 15편(3.5%), Laboratory Medicine Online (LMO) 12편(2.8%) 순이었다. 즉 국내 수혈관련 논문 중 대한수혈학회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학술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혈관련 논문으로 검색된 430편 중 대한적십자사에서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모두 대한수혈학회지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본 학술지의 주저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대부분 논문을 본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급혈액원의 주된 관심사인 혈액공급과 수혈혈액안전 및 관련국가정책이 주로 대한수혈학회지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ALM과 LMO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식 학술지로 수혈의학 외에도 진단혈액, 임상화학, 임상미생물 등 다양한 진단검사분야를 함께 다루며, Blood Research는 대한혈액학회 공식 학술지로서 수혈의학뿐만 아니라 혈액학 전반에 걸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에 구별되는 점으로 대한수혈학회지는 수혈의학 분야만을 다루며, 특히 논문 범위로서 타 학술지와는 달리 ‘혈액은행 및 수혈관리’와 ‘헌혈 및 혈액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혈액관리와 수혈관련 정책 용어를 포함하여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기술하고

논의하는 데에는 국문이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므로, 영문학술지인 ALM과 Blood Research에 비교하여 국문학술지인 대한수혈학회지가 장점과 의의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한수혈학회지의 자기인용비율이 높은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평가에서 KCI-IF가 낮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비단 대한수혈학회지만이 아니라 국내 학술지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KCI 등재(후보) 의학 분야 학술지 총 304종의 논문 26,974편의 2-year KCI-IF는 0.33, 자기인용 제외 KCI-IF는 0.23이었으며 자기인용비율도 31.69%에 해당하였다. 이는 SCI(E) 등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업적평가나 연구비 신청 등 각종 평가와 연계되면서 국제학술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국내학술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대한수혈학회지의 의의 및 발전 방안의 모색

대한수혈학회지가 가지는 특수성과 가치는 저자와 독자층의 다양성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가 등으로 직종이 다양하며 동일 직종 내에서도 전공과 업무가 매우 다양하다.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공급혈액원에서 수혈과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뿐만 아니라 혈액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의사 등으로 다양하며, 간호사도 의료기관에서 수혈과 혈액성분채집을 담당하는 간호사 외에도 공급혈액원의 헌혈 채혈 간호사가 있으며, 임상병리사 역시 의료기관의 수혈전검사와 혈액관리업무 담당자 및 공급혈액원의 헌혈자 선별검사와 혈액제제공급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헌혈증진과 수급에 관여하는 공급혈액원의 행정가와, 혈액안전감시과를 비롯하여 보건복지

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가들 역시 저자와 독자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수혈학회지는 비단 수혈의학의 학술적 측면의 논문뿐만 아니라 국제학술지와는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혈액관리와 수혈정책 관련 논문 수록에도 힘을 기울여, 국가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는 것에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한수혈학회가 질병관리본부와 2009년 MOU를 체결하여 매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수혈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사업(2010년), 혈액안전사업단 운영사업(2012) 등을 위탁 시행하여 온 점, 회원들이 수혈·혈액관련 국가정책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하여 온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향후 본 학술지의 가치평가와 연구 기여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되 앞으로 보다 많은 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수한 논문의 양적 증가는 궁극적으로 인용지수의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수 증대를 통한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첫째, 학회 회원의 연구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예로써, 대한수혈학회 홈페이지의 '최신지견'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수혈관련 학술발표나 연구 성과 및 최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법이다. 또한 대한수혈학회지 발간 시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중요 논문을 몇 편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편집위원 구성의 다양화 방안이다. 본 학술지의 저자와 독자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가 등 다양한 직종의 수혈 전문가로 구성된 것에 반해 현재 편집위원은 수혈의료기관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다 다양한 직종과 소속기관의 편집위원이 참가함으

로써 관련 학회와의 연계나 학술지 홍보 효과로, 다양한 전공자로부터의 논문 투고 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편집진이 각종 학술대회 발표 내용과 국가 혈액정책 이슈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해당 저자에게 종설이나 사설 등의 논문 투고를 적극 요청하는 방안이 있겠다. 넷째, 학회 회원들로부터 온라인논문 투고시스템이나 온라인저널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창구를 각 홈페이지에 마련하여,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학술지 홍보를 위해 저널소식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현재와 같이 각 발간호의 논문소개에 더하여, 학술지 시스템 개선이나 우수논문상 선정 내역 등 다양한 학술지 관련 소식을 알림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한수혈학회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저자와 독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집진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학회 회원 모두의 관심과 애정을 통하여, 대한수혈학회지가 수혈의학 연구와 국가 혈액사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대한수혈학회지의 발행과 학술지평가에 애써 주신 역대 편집위원회와 대한수혈학회의 강훈진, 조선미 선생님, 그리고 수혈의학 연구에 힘쓰시고 논문을 투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1. Lim YA, Seo DH, Hwang YS. How does COVID-19 affect blood transfusion and blood management? Korean J Blood Transfus 2020; 31:1-4
2. Kim MH. COVID-19 and transfusion blood. Korean J Blood Transfus 2020;31:61-6
3. Roh J, Kim HM, Kim JN, Kim S, Kim HO. Practical considerations in convalescent plasma therapy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Korean J Blood Transfus 2020;31:67-9
4. Park BM, Song YK, Kim TS, Lee GH, Choi JS, Seong MW, et al. The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unexpected red cell antibodies at National Cancer Center. Korean Soc Blood Transfus 2009;20:120-8